

최첨단 함평전용훈련장 시대 '활짝'

KIA 2군에 활기가 돈다

KIA의 '하수분 야구'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합평 훈련장 개장과 함께 '전용훈련장 시대'를 열었다. 합평 학교면 곡창리 일대 총 7만9200㎡(2만4000평) 부지에 자리한 전용훈련장은 지난 2010년 5월 공사에 들어갔다.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은 지난해말 완공됐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클럽하우스와 실내연습장 공사가 한창이다. 2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주경기장은 좌우 펜스까지 100m, 중앙 펜스까지 거리가 120m로 외야 펜스에 최고급 자재가 투입됐다.

덕아웃, 라커룸, 코치실, 운영실, 기자실도 구비됐으며 원정팀을 위한 라커룸과 샤워시설 등이 최신식으로 꾸려졌다.

KIA는 지난 시즌까지 합평에 있는 전남야구경기장을 2군 경기장으로 사용했다.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된 덕아웃과 철망이 세워진 외야 펜스 등 사회인 야구장으로 쓰이는 곳이었다. 따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1군 스케줄에 따라서 무등경기장을 오가며 경기와 훈련이 진행됐다.

하지만 선수들은 올 시즌 전용훈련장에서 여유롭게 2군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연말에 클럽하우스와 실내연습장까지 들어서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

KIA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용훈련장이 조성되며 이어 올 시즌 신진급 선수들의 파격적인 1군 기용이 이뤄지면서 2군에 활력이 돌고 있다.

2012시즌을 앞두고 KIA 선동열 감독은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 감독의 공인대로 박지훈·홍성민·윤완주 등 신인 선수가 투·타에서 중용되고 있으며 외야수 이준호, 포수 한성구, 투수



이준호

한성구

김종훈

덕아웃·라커룸·코치실 등 최신식 시설로 꾸려져 클럽하우스·실내연습장 연말 완공 목표 공사 한창

김종훈은 신고선수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 좌완 임기준도 올 시즌 프로데뷔 전을 치렀다.

특히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신고선수 출신의 이준호는 외야를 중용되면서 '이준호 효과'를 만들었다.

새 얼굴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1군이 불가능의 무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 또 박철우 2군 총괄코치가 적극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예년과 다른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KIA 2군은 14일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2-3으로 어렵게 패하면서 올 시즌 상대전적이 3승6패가 됐다. 그러나 내년 1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난적 NC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기도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0.5게임차로 남부리그 1위 NC를 추격하기도 했던 KIA는 퓨처스리그 최강전력을 과시하는 경찰청을 상대로는 3승3패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지난 시즌 KIA 2군은 31승65패4무로 0.323의 승률을 만드는데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51경기에서 23승3무24패를 기록하며 0.489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

선수 육성을 위한 노력은 밤에도 계속된다.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코칭스태프가 순번대로 선수단 숙소인 맹호관에 입소해 선수들과 야간훈련을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 속에 KIA의 '하수분 야구'가 싹을 틔우고 있다.

/합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홈런성 타구 낚아챘다

관중 수비 방해에도 호수비... 2경기 연속 안타도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계속된 신시내티 레드와의 인터리그에서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삼진 2개를 당한 그는 시즌 타율이 0.270으로 조금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으나 3회에는 중전안타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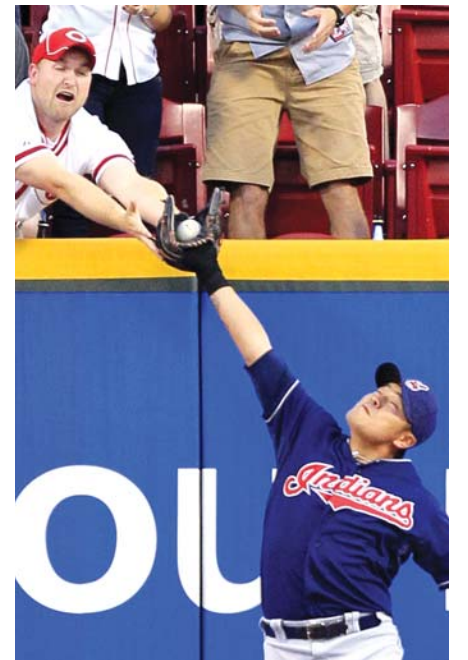
5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고 7회에는 다시 삼진을 당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특히 이날 추신수는 호수비를 보여줬다. 6

회말 신시내티 선두타자 라이언 루드워이 때린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향해 그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추신수는 이를 포착하고 타구를 향해 달려가 펜스 바로 밑에서 그대로 뛰어 오르며 글러브 속에 타구를 낚아채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찔한 상황이 순간 벌어졌다. 외야석의 신시내티 관중이 그대로 손을 뻗으며 추신수의 글러브를 잡으려는 듯 수비를 방해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매너 관중의 수비 방해에도 추신수는 잡고 있던 타구를 놓치지 않고 상대 타자를 플레이 아웃 시키는데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3-5로 졌다. /연합뉴스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14일 열린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6회 루드워이의 타구를 관중의 수비방해 속에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한국시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AT&T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맷 케인(사진 왼쪽)이 9회까지 단 한 명의 타자로 출루시키지 않고 퍼펙트 게임을 마무리 하자 마운드에 올라 축하세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판 000...000... '퍼펙트 게임'

샌프란시스코 맷 케인... ML 22번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2번째 퍼펙트 게임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우완 선발투수 맷 케인(28)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9이닝 동안 삼진 14개를 쏴내며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아 10-0으로 대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케인은 지난 4월22일 필립 햄버(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이어 올시즌 두번째, 130여 년 메이저리그(ML) 역사에서 22번째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투수가 됐다.

자이언츠 구단으로는 창단 이후 최초의 퍼펙트게임이다.

이날 125개의 공을 뿌린 케인은 대기록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

6회초 1사 뒤 휴스턴의 크리스 스나이더에게 장타를 맞았으나 좌익수 멜키 카브레라가 펜스 앞에서 뛰어오르며 공을 잡았다.

7회초에는 휴스턴 선두타자 조던 셰이퍼가 우중간에 2루타성 타구를 날렸으나 우익

수 블랑코가 워닝 트랙에서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쳐 위기를 넘겼다.

7회를 마친 뒤 더그아웃에서 블랑코와 감독의 포옹을 나누는 케인은 "정말 믿을 수 없

는 수비"였다고 기뻐했다. 두 차례나 올스타에 뽑혔던 케인은 그동안 등락하는 경기마다 특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운한 선수'로 불렸지만 올시즌 8승2패, 평균자책점 2.18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다. /연합뉴스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내용 | 지경홀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즌 성공시 혜택
 대상 | 주중 내정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제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팰리스 20번홀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이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